



순창군 귀농·귀촌인구 유치 시책이 논스톱 질주하면서 2011년 사업추진 이래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귀농·귀촌 시책 성과 '톡톡'

순창군, 사업추진 이래 인구 1000명 넘어... "올해 1500명 유치" 선언

순창군 귀농·귀촌인구 유치 시책이 논스톱 질주하면서 2011년 사업추진 이래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해 귀농·귀촌인구 최종 집계결과 618세대 1,010명을 달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1년 귀농귀촌인구 유치 사업추진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처럼 지난해 순창군 귀농귀촌 실적의 늘어난 데는 순창군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귀농·귀촌정책이 차근차근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귀농은 동반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지역 귀농귀촌인들이 순창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해 단기교육부터 6주 장기교육과

지 귀농귀촌에 관한 인스톱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한해만 509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외에도 귀농인들이 귀농 시 가장 힘들어 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인의 집, 귀농인 마을, 쉼어하우스 등 다양한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소득사업비, 이사비, 집수리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도 순창의 귀농인구 유치를 한몫을 하고 있다.

군은 올해는 1,500명 귀농귀촌인구 유치를 선언했다. 황숙주 군수는 "1,500명 목표를 제시하며 연초부터 강한 귀농귀촌인 유치 시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가장 주목을 끄는 순창의 귀촌 유입시책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다.

원룸 6개, 아파트형 주거시설 2세대,

복층형 주거시설 2세대로 구성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세대당 100㎡ 규모의 실습농장과 함께 만들어져 영농실습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휴건축 연구소 설립을 중심으로 선배 귀농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수리해주고 기술도 전수해 주는 동네목수양성교육은 지역주민과 귀농인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며 순창 귀농귀촌 정책성공을 견인하며 올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왜소화 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이제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면서 "올해는 더욱 특별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1,500명 귀농귀촌인 성과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통·배려로 현안문제 해결”

신평우 임실부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지난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기치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신평우 부군수는 개인의 열정과 팀워크를 중중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묵민관으로 정평 나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80년 공직에 입문한 신평우 부군수는 전북도청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민생환경경제과장, 재정과장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다 지난해 1월 1일 부군수로 취임했다.

소통과 배려를 무기 삼아 산적한 현안문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특히 지난해 21만명의 관광객이 몰린 '제2회 임실N치즈 축제'의 대성공을 비롯해 '임실N 치즈'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

육성도 권역 개발에 따른 인접한 자치단체와 연결된 실타래를 풀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수변생태관광 특화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과 과감한 업무 추진력으로 지역의 굼직현안을 능동적으로 처리해 '해결사'란 별명을 얻었다.

소통을 통한 결연 돌출과 행정의 조정자로 직원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군민요구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 3천302억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신평우 부군수는 "지난해 심민군수를 도와 공무원들과 '살고 싶은 임실'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올해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둬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농·어업 복지정책 추진

14억 5000여만원 투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9월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복지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가입과 농가도우미지원, 자녀학자금 지원과 영농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복지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부족한 인력을 대처하고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해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대상 범위를 기존 35세에서 25세 이상 여성농업인까지 대폭 확대

해 영화관람과 미용실, 화장품,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준다.

또한 출산 여성농업인에게는 부족한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출산기간 중 70일 동안 영농을 대처할 수 있도록 35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번기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12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건강과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복지지원을 적극 펼쳐 나간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집중하며 힘든 영농생활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의회, 군정 주요업무계획 나서

순창군의회(김종섭 의장)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된다.

김종섭 의장은 9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무더웠던 폭염, 쌀값 폭락, 국정농단의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월 국제소소박람회를 시작으로 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살이 발표회를 조성사업 등 1200억에 가까운 다양한 국가 예산 확보로 순창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암면 안수용씨,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운암면에서 양계업에 종사하는 안수용(66, 뽕농장)씨는 지난 6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운암면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09년 60여년을 살던 고향 전남 여수에서 운암면으로 귀농한 안씨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한 기부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현기 면장은 "운암면은 지난 1965년 삼진강댐축조로 평생 가꾼 농지가 수몰돼 어려운 환경이 많다"며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AI 긴급 방역회의 개최

남원시는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라 전실과소, 읍면동장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였다.

강북대 신임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방역회의는 전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하였으며, 축산과장의 그간 가축방역 추진상황 보고 및 읍면동별 AI 방역 추진사항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소규모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별 소규모 가금농가 방역대책을 중점 점검하였다.

남원시에는 소규모 가금농가 480호에 5,153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7수를 자가 도태하고, 그 외 가금은 소독시설에 있는 격리된 축사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가 도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담업무 가금농가는 전담공무원(25명)이 매일 전화예찰 실시 및 소독약품, 생석회 등을 공급하여 자율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소독약품을 지속 공급하여 소독, 격리상태를 점검하여 질병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성수식품 취급 업소 점검

임실군은 설 명절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성수식품 취급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한과, 엿, 감정, 떡 등 설 성수식품 4개 품목을 सू겨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 경미한 적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국인의 분향, 고창' 특허청 등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따뜻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귀향하고 싶은 지역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 브랜드 명칭을 특허청 업무표지에 등록했다고 9일 전했다.

군은 그간 고향의 맛과 멋, 문화가 살아 숨 쉬며 산과 들, 바다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 풍요로운 고향군의 따뜻하고 정겨운 지역 이미지를 '한국인의 분향, 고향'이라는 브랜드 명칭에 담아 사용해 왔다.

특히 '한국인의 분향, 고향'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청정한 자연생태경관과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 관소리와 유적유산을 보유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의 의미도 잘 담겨 있다.

업무표지 등록에 따라 지역의 분위기 특성을 잘 반영하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창군을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따른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겨운 고향, 자연과 사람이 오손도손 정답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요 싶은 고향으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군민들의 자긍심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참본,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대상 수상

악·청주 부분 - 황진이 · 기타주류 부분 - 주몽복분자주

문화도시 남원이 명주의 고향으로 다시한번 명성을 확인했다.

참본(대표 오수현)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에서 악·청주 부분(황진이), 기타주류 부분(주몽복분자주)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차지하였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

는 국가공인주류평회로, 서류심사를 거쳐 소믈리에와 주류 전문가들이 맛, 향, 색, 후미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명품주를 선정한다.

악·청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황진이는 청정지역에서 자란 질 좋은 오미지와 순곡을 주원료로 하여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넣어 옛 선조의 전통기법으로 빚은 토속 민속주로서 숙취가 없고 청량감이 풍부하여 남녀 모두 즐겨찾는 술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동림저수지 AI 현장 방문 격려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봉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9일 동림저수지 출입통제초소는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법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림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방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법제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림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역차량을 비롯해 축력 공동방제단, 흉터농협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살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림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림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림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불량식품 집중단속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설 명절 전후로 차례·선물용 등 식품수용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달 말일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

물용, 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부정당한 방법을 통한 우수 식품 인증 및 인종마크 무단사용 행위 등을 사전차단하고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중인 만큼 살처분 대상 닭·계란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엄

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일섭 서장은 "설 명절 전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설명절을 건강하고 바쁜 먹거리를 함께 하도록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